

전국 영어교사 수업 우수사례 공유

한국중등영어교육연구회 학술포럼, 오늘까지 전주 그랜드힐스턴서… ‘디지털 대전환 수용’ 주제

전국 영어 교사들의 수업 우수사례 공유의 장이 마련됐다.

‘제37회 한국중등영어교육연구회 학술포럼(회장 김정기)’이 9~10일 이틀간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열린다.

1987년부터 글로벌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영어 교수법들을 학교 현장에 적용하고, 그 결과를 전국 중·고등학교 영어 교사들과 함께 나눠왔다.

이에 따르면 이번 학술포럼은 영어 교사의 수업 역량을 키우기 위한 것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등 영어교원, 교육전문직 등 500여 명이 참석한다.

김정기는 전북대학교 교수와 이명지 전주서곡중학교 과학 교사, Carishma Ramchurnan 원어민보조교사의 영어몰입형 수업에 관한 기초강연을 갖고, 15명의 시도 대표 교사가 우수 수업 사례를 영어로 발표한다.

올해는 주된 사례발표 주제가 ‘Utilizing AI Tools’, ‘Enhancing Student Agency and Literacy’로 인공지능, 학생행위 주제성, 문해력 등으로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그



‘제37회 한국중등영어교육연구회 학술포럼’이 9~10일 이틀간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열린다.

고민들을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 보여주는 시간이 될 전망이다.

김정기 회장은 “이번 학술포럼을 통해 영어 교육 전반에 대한 지식의 공유와 확장을 이뤄 한국의 영어교육 발전에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학술포럼에 참석

한 전국의 영어 교사들이 영어 교육에 대한 값진 정보를 공유하고, 영어 교육의 게임체인저가 되길 바란다”며 “전북의 학생들이 미래를 이끄는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창업지원단, 유학생 대상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전북대학교 창업지원단(단장 국경수)은 지난 8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유학생 대상 우수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글로벌 경진대회인 ‘2024 Global Inbound Start-up Idea Competition’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9일 창업지원단에 따르면 지난달 19일과 20일 유학생 42명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검증 캠프 운영을 통해 관련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이를 통해 고도화된 아이디어를 보유한 15개 팀을 대상으로 후속 멘토링을 제공, 경쟁력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이번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창업 아이디어가 우수한 10개 팀을 선정,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300만 원의 상금도 수여됐다.

특히 법무처 통합 창업경진대회 예선전 신청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지역 내 유학생 창업 문화 확산 및 우수 청년창업 기업 육성에 나섰다.

/장은성 기자



태권도진흥재단은 지난해 10월부터 진행한 ‘위대한 태권도’ 본선 진출 8개 팀의 준비과정과 주요 관광지 및 축제장에서의 공연, 본선 경연 대회 실황과 우승자 발표 등을 담은 영상 콘텐츠를 10일 태권도원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한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에서 벌어진 시범 공연의 모습이다.

태권도 시범공연문화의 새로운 장

태권도진흥재단, ‘위대한 태권도’ 영상 오늘 공개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김중헌)은 지난해 10월부터 진행한 ‘위대한 태권도’ 본선 진출 8개 팀의 준비과정과 주요 관광지 및 축제장에서의 공연, 본선 경연 대회 실황과 우승자 발표 등을 담은 영상 콘텐츠를 10일 태권도원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channel/UCM17rwjecnZIVbvV0m-NYNA>)에서 공개한다.

‘위대한 태권도’는 국민들과 외국 관광객들에게 국가 태권도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시범경연대회의 준비부터 대회까지의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제작했다. 이를 위해 PD와 작가 등 영상 제작 전문가와 함께 본선 심사위원으로 ‘공연 예술 분야’에 안무가 리아진, 강요찬, 이무다, ‘태권도 심

사 분야’에는 나채만·허재성 교수, 신민철 대표, 강동권 사범이 전문가로 참가했다.

청와대와 인천국제공항, 경주 대릉원 등에서 진행한 시범공연에서는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태권도의 멋과 화려함 등을 선보이며 문화 관광 콘텐츠로 성장한 태권도를 알리며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특히 지난 해 11월 30일 태권도원에서 진행된 본선 대회의 결과는 10일 공개되는 ‘태권도원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10일 ‘위대한 태권도’ 영상 공개에 앞서 2일과 7일 티저 영상을 선보이며 본편 공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제30대 전북지역대학총장협의회 신임 회장 선출

강희성 호원대 총장

호원대학교 강희성 총장이 2025년 전북지역대학총장협의회 신임회장으로 선출됐다.

전북지역대학총장협의회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에 소재한 4년제 대학교 총장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학 간 상호협력력을 통해 대학교육과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

지난달 11일 군산에서 개최된 전북지역총장협의회 정기총회 자리에서



장은 2025년 1월 부터 1년 동안 전북을 비롯해 광주·전남, 대전·세종·충남, 부산·울산·경남·제주, 강원, 대구·경북, 충북

등 지방 7개 권역 총장협의회연합회 전북권 대표 총장직도 함께 수행하게 된다.

강희성 호원대 총장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대학의 현실적인 어려운 상황들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지방대학의 활성화를 통해 대학이 지역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대학과 지역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상호협력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군산=이재춘 기자



전주대, HUSS 공동융합캠프

지산학 리더십 아카데미 성료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지난 6~8일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HUSS, 이하 휴스) 공동융합캠프 ‘지산학 리더십 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 동계 융합캠프에서는 휴스 사업 참여 4개 컨소시엄(지역, 디지털, 글로벌공생, 위험사회)에 소속된 총 20개 대학·인문사회 계열 학생 300여 명이 참가해 학문과 산업, 지역 사회를 연결하는 특강, 전복 지자체 공무원의 지역 현안 브리핑, 한옥마을 답사, 지역문제해결 아이디어 공모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다.

/장은성 기자

팔복예술공장 창작스튜디오

레지던시 8기 입주작가 모집

전주문화재단은 팔복예술공장 창작스튜디오 레지던시 8기 입주 작가를 공개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원자격은 공고일 기준 대학 졸업생으로 회화, 조각, 사진, 설치, 미디어아트 등 시각예술 전 분야 국내 예술인으로, 모집인원은 7명이다.

입주작가에게는 작업에 전념할 수 있는 개인 창작공간과 역량 프로그램인 1:1 비평가 매칭, 레지던시 교류전 등이 지원된다. 입주기간은 2025년 3월 10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다. 접수는 31일까지 팔복예술공장 누리집(www.palbokart.kr) 입주작가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장은성 기자

글로벌대학 31개교, 공동 목표 실현 공유

글로벌대학협의회 3차 총회

글로벌대학협의회(회장 양오봉)는 지난 8일 화상회의를 통해 제3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는 지난해 제2기 글로벌대학으로 새롭게 선정된 대학들이 처음으로 참석해 총 31개 대학의 총장 및 관계자들이 대학 간 협력과 공동 목표 실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양오봉 전북대 총장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된 이날 회의에서는 주요 활동 보고와 함께 2024년도 예산 변경, 차기 회장고 및 부회장고 선출 등 주요 안건이 논의됐다.

이번 총회에서는 협의회가 추진해 온 주요 사업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대학과 지역사회의 상생을 위한 혁신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오는 3월 예정돼 있는 글로벌대학협의회 국제포럼 준비 현황과 의견 확장을 위한 홍보 활동 계획도 함께



화상회의를 통해 열린 글로벌대학협의회 제3차 정기회의.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게 논의했다.

양오봉 총장은 “글로벌대학협의회는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

을 위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앞으로도 회원 대학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무주산골영화제, 한국장편영화경쟁부문 ‘창’ 섹션 출품작 공모

내달 28일까지 진행

초록빛 자연, 보랏빛 낭만으로 가득한 6월의 영화 축제 ‘제13회 무주산골영화제’가 9일부터 한국장편영화경쟁부문 ‘창’ 섹션 출품작을 공모한다.

초여름을 대표하는 영화 축제 ‘무주산골영화제’는 무주의 자연을 스크린 삼아 다양한 영화들을 소개하고 남녀노소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과 이벤트를 선보이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번 공모는 영화제의 유일한 경쟁

섹션인 ‘창’ 섹션 상영작에 대한 것으로, ‘창’ 섹션은 우리가 사는 다채로운 세상을 개성적이고 차별화된 시선으로 포착하여 한국영화의 지평을 넓힌 동시대 한국장편영화를 선정해 상영하는 프로그램이다.

매년 9-10편의 작품들이 한국장편영화경쟁부문 ‘창’ 섹션으로 선정되어 영화제 기간에 상영되며, 심사를 거친 작품 중 우수작에게는 뉴비전상 등 다양한 시상 부문에 따른 상금이 수여된다.

출품 방법은 2월 28일까지 ‘제13회

무주산골영화제’ 홈페이지(www.mjff.or.kr)공지사항에서 출품 공고를 확인 후 출품 신청서와 작품을 함께 온라인 제출하면 된다. 2024년 3월 1일 이후 제작 완료된 60분 이상의 한국장편영화라면, 장르 제한 없이 출품 가능하다.

출품작은 예선 심사를 거쳐 4월 중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무주산골영화제 공식 홈페이지 및 프로그램팀(program@mjff.or.kr)으로 문의하면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완주 삼례문화예술촌서 지역 작가 만난다

지역작가 공모 총 6명 선정… 류재현 작가 전시 시작

완주군 명품관광지 삼례문화예술촌에서 올해 지역작가 공모를 통해 6명의 작품을 전시한다.

9일 완주군에 따르면 삼례문화예술촌에서는 클래식명화, 지역작가 공모 전시, 공예품 공모 전시, 역사 전시관 등 다양한 전시를 펼치고 있다.

특히, 지역작가 공모전은 지역작가의 역량 제고 및 다양한 문화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매년 이뤄지고 있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12명이 응모했으며, 적합성과 작가의 전문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해 류재현(1화차), 김성석(2화차), 윤대라(3화차), 박진영(4화차), 김성민(5화차), 백금자(6화차) 작가 등 6명이 선정됐다.

회화, 공예 등에서 국내외 수상경력이 있는 뛰어난 작가들로 연말까지 약 2개월씩 총 140여 점이 전시될 계획이다.

첫 번째 주자인 류재현 작가의 전시는 삼례문화예술촌 제3전시관에서 3월 6일까지 만나볼 수 있다. 검은 캔버스 바탕에 유화물감을 수묵화로 선명히 표현한 숲을 주제로 작품을 전시한다. 류 작가는 숲이 어둠의 본성을 품고



있다고 생각해 캔버스의 바탕을 검은 바탕으로 칠하고 그 위에 유화로 수목화를 그리듯 가볍고 부드럽게 숲을 표현한다.

대표작인 ‘바람의 숨결’은 초여름 제주의 원시림 속 나무들의 초록빛 생명의 기운을 표현한 작품으로 여린 나뭇잎에 부딪혀 반짝이는 빛을 통해 외부세계와 내면세계를 연결한다. 명상적이며 자기성찰적 공간의 표현이 방문객들의 관심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완주=염재복 기자

정읍시립미술관, 기증 작품으로 문화예술 전파

예술작품 기증 조무하·유성길씨에 감사패 전달

정읍시립미술관은 최근 정읍시청 시장실에서 귀중한 예술 작품을 기증한 조무하(서울)씨와 유성길(정읍시)씨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조무하 씨는 2017년 시립미술관의 인연을 계기로 현재까지 한국 근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예술 작품 400여점과 아카이브 자료 600여권을 기증했다. 현재 시립미술관의 소장품 절반 이상이 조 씨의 기증으로 이뤄질 정도로 지역 문화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의 기증품에는 장욱진, 박수근, 나상목, 조방원 등 한국 근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작가들의 작품은 물론, 미술

자료로서 활용 가치가 있는 아카이브 자료도 기증했다.

유성길 씨는 2016년부터 남종화의 대가로 알려진 윤관상방 1대 소치 허형, 3대 남종 허건의 작품을 비롯해 전북 대표적 한국화가인 토립 김중현의 작품을 기증하며 정읍 미술사에 귀중한 가치를 더했다.

기증된 작품들은 기증자의 뜻에 따라 시립미술관 전시와 학술·연구 자료로 활용된다. 이 작품들은 시민과 미래 세대에 정읍의 문화예술을 알리고 보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